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대통령의 네 가지 존재감

결국은 올해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고 말았다.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게 가벼웠던가? 보훈처는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청와대는 지시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항명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아집과 오용집행이 고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불행하게도 이제 국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얼마나 미미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하라는 사안으로 겨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말인가? 한때 ‘선거의 여왕’이었던 추억을 못 잊고 총선에서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벌써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능의 한계치가 있음을 말이다. 거기에 오만의 그림자까지 드리우면 여지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정지권의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총선이 끝나고 이제 온통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헌과 인위적 정계개편 등 여러 시도가 이루어져왔지만 정지권의 게임만으로 그칠

위험성도 농후하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할지 기대가 높아졌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높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차기 대통령은 과연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어떤 존재감을 바라는가?

첫째는 ‘책임의 존재감’이다. 간단히 말하면 과연 국정의 곳곳을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따라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감 말이다. 이런 책임감은 만기전람식의 국정 수행으로써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적시적소에 리더십을 부여해 주되 항상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마치 신과 같은 ‘옴니 프레즌스’(omni-presence)를 필요로 한다. 대통령은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해야 한다!

둘째는 ‘신뢰의 존재감’이다. 사실 책

임의 존재감과 신뢰의 존재감은 같이 간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대통령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의 존재감이 있었더라면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커져 버린 사회적, 법적적 참사, 메르스 사태, 옥시 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참사가 참사를 키우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풍토, 어떻게든 피해 가겠다는 분위기를 리더가 자아내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통의 존재감’이다. 꼭 말을 잘해야 할 이유도, 많이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나의 말을, 우리의 말을, 다른 편의 말을, 다른 생각을 가진 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믿음이 소통의 존재감이다. 격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믿음,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믿음, 희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믿음이 소통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소통은 가히 뺑뺑이다.

넷째는 ‘이성의 존재감’이다. 물론 세상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감정과 직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

여 살아야만 하는 이 불확정성의 시대에 적어도 이성적으로 논리를 세우고 계획하고 설명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작동하던 합리적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정책 결정에 설명하지 않고 홍보만 하려하는데 어떻게 이성이 세워지겠는가? 언론들을 호위대로 만드는데 어떤 이성적 비판이 가능하겠는가? 국정원의 존재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퍼지는데 어떻게 이성적 비판이 가능하겠는가? 돈으로 시민단체를 사서까지 여론을 호도하려는데 어떻게 이성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그대야 ‘책임의 존재감, 신뢰의 존재감, 소통의 존재감’, 이성의 존재감’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존재감이 무너져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적어도 임기 말까지 더 이상의 큰 사고 없이 버티 주기를 바라는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존재감일 터이니 말이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社說

한강 맨부커상 수상 ‘문학 한류’ 기폭제로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46)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작가는 물론 아시아 작가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작가 개인을 넘어 한국 문학 전체의 위상을 높인 쾌거다.

맨부커상선정위원회는 옛그체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 겸 시상식에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올해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서정적이고 환상적으로 그려 낸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때문에 이번 수상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독특한 시각과 문체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 준 셈이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데에는 무엇보다 작가 한강의 역량이 있었을 것이다. 소설가 한승원 씨의 말일 그는 탄탄한 문학성을 인정받아 일찍이 한국 문단의 차세대 주역으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수상은 번역의 힘을 세상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한 씨도 수상 소감에서 영국인 번역가 데비리 스키스(29)를 언급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으로 불릴 만큼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이다. 번역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문학계는 이번 수상이 ‘문학 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역량 있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늘어나는 등 문단 환경이 변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한국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될 날도 오지 않겠는가.

소록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 불 만하다

사회에서 소외받던 한센인들의 보금자리인 고흥의 국립 소록도병원이 옛 그체 개원 100주년을 맞았다. 병원의 100돌과 ‘제13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각계 인사들이 찾아와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소록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남다른 질병 때문에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렸던 한센인들이 그동안의 슬픔에서 벗어나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록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관이 아름답게 꾸며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휴가철에는 타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한편 소록도 개원 이후 환자들의 버팀목이 돼 왔던 송고한 인류에는 세계 문

화유산의 토대로 손색없다는 평가다. 40년 동안이나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았던 한센인들이 대가 없이 가족처럼 보살핌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마가렛 누냐의 참된 희생의 이야기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만하다. 낮은 곳에서 한센인들과 함께했던 이름 모를 국내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녹여 있어 소록도는 인류 사랑의 현장으로 불린다.

소록도가 국립병원인 만큼 현실적으로도 국민의 정원으로 가꾸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민 행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정부는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 줌으로써 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록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이들이 삶의 안식처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록도의 인간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관이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집에 돌아가지마자 일기장을 찾아봤다. 이빨이 빠지긴 했지만 일기장 몇 권이 남아 있었다. 낱씨를 뒤적이며 ‘그 날’의 일기를 찾았다. 후배가 쓴 ‘사진작가 문선희 씨 기사’를 읽은 뒤 ‘일기장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가 퍼낸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난다 출간)에는 5월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기억이 글과 사진으로 실렸다. 2년간 1980년 당시 초등학생 80명을 인터뷰한 기록이다.

이 박수를치고 있다. 참 이상하다? (28일) 일기를 읽기 전까지 기억 속에서 ‘총소리’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정말 의외였다.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어린이에게 주목한’ 문 작가 작업은 기억을 채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기억이 담긴 골뎀김을 곁으며 ‘담벼락’을 촬영했다. 책을 읽고, 일기장을 들춰 보고, 오늘 전시(22일까지 은암미술관)를 보라겠다. ‘읽’, ‘탕’, ‘내가 봤어’, ‘학교는 쉽다’ 간결한 제목에 담긴 사진은 강렬하다. 올해 오월은 왠지 가까이 있는 기분 들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나의 '80년' 일기

18일 일기엔 친구의 생일파티만 담겨 있었다. 19일의 내용은 이랬다.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수부대에서 관한 이야기였다. 사람 죽이고 폐고 한다는 것이다. 정말 끔찍했다. 뭐 눈이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내가 보지는 않았지

만 물어야 할지 먼저 물어야 할지.” “한밤중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워서, 더위 죽겠는데도 이불을 둘러쓰고 잠자 버렸다.”(20일) “오늘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광주사태 일이 없었더라면 전남백만인권기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21일) “새벽에 총소리가 났다. 두려움은 컸다. 간이 콩알만 해진다. 총이라도 안 쏘았으면”(27일)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태극기를 내걸고 각종 생 80명을 인터뷰한 기록이다.

의료칼럼

5월의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박 찬 우 광주지독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교수

마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비염은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연속해서 재채기가 나오거나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혀 목소리까지 변할 수 있다. 코 증상의 경우 대부분 발작적으로 생기는데, 발작이 지나가면 다음 발작이 나타날 때까지 비교적 잠잠할 수 있다. 해당 증상은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세수 할 때 흔하게 발생한다.

눈에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 통증, 가려움증, 이물감, 발적, 눈곱 등이 있으며 충혈과 분비물, 결막의 부종, 결막 밑 출혈이 보일 수 있다. 또 눈물이 많이 흐르거나, 눈물이 눈물샘을 타고 코로 나와 콧물을 보일 수 있다.

알레르기 증상은 계절적,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화되어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전만 후대 수줍지 않게 생각하고 방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알레르기 비염을 방지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천식 단계까지 만성화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실제로 천식 환자의 대다수인 80%가 알레르기 비염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40%가 천식을 동반하고 있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함께 치료 및 관리해야 한

다. 천식을 앓으면 꽃가루, 먼지, 음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호흡기관과 발작적인 기침, 쌉쌉거리는 천명 소리 등 거친 호흡 등이 나타나 숨이 찰 수 있다.

또한 천식 외 코 주위의 얼굴 뼈상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하는 부비동염(총늑증)과 귀속 공간에 염증성 변화를 말하는 중이염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채기,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꽃가루로 인한 계절적인 증상으로 지레짐작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막는 방법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초기부터 환자 연령이나 상태나 증상 등에 맞춘 적합한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해야 한다. 약물요법의 경우 유럽의 치료 지침(ARIA)에서 증상의 정도와 기간에 따른 분류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지침을 원칙으로, 약제는 대부분 경구용 혹은 비강 내로 투여한다.

천식은 세계천식기구의 천식치료 지침에서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1차 치료제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과 천식 치료 모두 소아나 노인 등 환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의 영향에 따라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하는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유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흡입처리가 어려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물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약물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많이 처방되는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경우 추정, 알약, 가립형 등 다양한 제형의 먹는 약물로 환자의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하며, 하루 1번의 간편한 복용으로 만성 질환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동시 조절하는데 용이하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선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만약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꽃가루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묻혀온 꽃가루가 집에 유입되지 않게 옷을 털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세수와 양치질을 해 꽃가루를 제거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잘 닫아서 꽃가루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황으로 지역의 유관기관이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광주는 이미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술개발 인프라가 분야별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동차 62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도시답게 금형, 프레스, 도장 등의 전후방 인프라와 전문 부품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한국형 자동차 생산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지우롱은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낮은 생산기술로 인해 완성도 높은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우롱의 전기차 핵심기술과 자본, 광주의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만날 경우 완성도 높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며, 광주의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건설도 앞당겨 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협약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있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세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지우롱차 광주 투자 현실화하려면

기 고



이 천 환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장

A6와 E6(모델명)인 15~18인승의 승합차기 주력차종이며, 광주시에서는 E6(전기차)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고자 한다. 지우롱자동차측의 설명에 의하면 초기에 11.5억 위안을 투자하여 현재 40만㎡의 면적에 3개의 공장이 프레스, 용접, 도장, 조립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만대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 2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하여 7인승 MPV(다목적차량·Multi-Purpose Vehicle)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53만㎡의 토지면적을 늘려, 최종적으로 연간 15만대의 생산규모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생산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 수준이다. 자동차의 조립 완성도와 내구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용접공정과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높은 차량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도 차량의 품질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구동계 핵심부품은 모두 중국 내에서 개발한 것으로, 배터리 팩은 중국 심천에서 생산하는 리튬 이온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투자를 고려하여 이미 한국의 배터리 업

체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여 일부 차종에 소량 적용하고 있다.

지우롱자동차의 기술수준을 종합해 보면, 차체 및 외장, 내장재, 전장 부품 등에서는 자체 기술로도 어느정도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고품질의 차량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기술의 혁신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우롱이 광주의 자동차 생산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는 전략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우롱이 광주에 투자할 경우 생산 공장을 완성하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장 설립과 동시에 한국형(Made in Korea)차량 개발해야 한다. 손조롭게 공장 설립과 기술개발이 진행된다면 3년 후에는 시생산 및 인증을 통해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한국형 전기버스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전기버스는 파워트레인 용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차체 등의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고, 충돌 안전 등에 대응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각 요소 부품들의 신뢰·내구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